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0. 19.(수) 09:30 < 10.19.(수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10. 19.(수)
담당 부서 <총괄>	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	책임자	과 장 송현주 (044-203-4330)
		담당자	사무관 여수항 (044-203-4332)

세계 일등 조선산업,
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 주도한다

- 비상경제장관회의(10.19)에서 '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' 발표
- 인력난 해소, 고부가·친환경 선박기술 조기확보, 금융·마케팅 지원으로 기술·시장 초격차 선도

□ 산업통상자원부(이창양 장관, 이하 '산업부')는 10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**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**」을 발표하였다.

○ 이번 전략은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업계의 차질 없는 **생산활동을 지원**하고, **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**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
□ 최근 세계 선박 시장은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**수주실적이 크게 개선***되고 있으며, '30년까지 연평균 4천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**이 지속될 전망이다.

* 세계 발주(만CGT) : ('13) 6,221 → ('14) 4,569 → ('16) 1,411 → ('18) 3,565 → ('21) 5,229
국내 수주(만CGT) : ('14) 1,310 → ('16) 224 → ('19) 1,006 → ('20) 827 → ('21) 1,746

** 발주량전망(만CGT, 클락슨, '22.9) : ('22) 4,220 → ('24) 4,110 → ('26) 4,590 → ('28) 4,300 → ('30) 4,660

○ 또한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* 등에 따른 조선산업의 **친환경 전환**과, 자율운항 선박, 스마트 야드 등 **디지털 전환**이 **본격화**되고 있다.

* 국제해사기구는 '08년 대비 '50년까지 탄소집약도는 70%, 온실가스 배출량은 50% 감축 목표제시('18)

□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조선산업은 **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**해야 하는 **과제에 직면**해 있다.

○ 첫째, 수주실적 개선에 따른 인력수요 급증에도 불구, 기존인력 이탈,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조선산업의 **인력 부족**이 **본격화**되고 있다.

* '22년말부터 약 1만명 내외의 생산인력 추가수요 발생 전망(조선협회 추산, '21.12말 기준)

○ 둘째, **고기술 주력선박**에 대한 **중국의 추격**이 **본격화***되고 있으며, 무탄소, 자율운항 등 **미래 선박 기술**은 유럽연합, 일본 등 **기술 강국이 경쟁적**으로 **개발** 중이다.

* 중(中), 대형 LNG운반선 건조 : 후동중화 → ('22.3) 장난, 대련조선 등 신규진입

○ 셋째, 최근 신시장 형성 및 구조조정 완료 등 **중소 업계**의 **여건 개선**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**경쟁력**은 여전히 **부족한 상황**이다.

□ 정부는 이러한 **위협을 극복**하고, 국내 조선산업의 **초격차 경쟁력 확보**를 위해 다음과 같은 **추진과제를 마련**하였다.

❶ 첫째,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**생산·기술분야의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할 예정**이다.

○ 우선 **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** 한시적으로 확대(최대 180일)하여,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,

○ E-9(단순노무) 외국인력의 E-7(숙련기능) 자격변경*(E-7-4)시 조선업 별도 할당량 신설**('23) 등을 통해 **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**하는 한편,

* 5년 이상 제조업 등 취업자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 점수평가를 통해 E-7변경 허용

** E-7-4 전체할당량을 '23년부터 확대(2,000명→3,000명)하고 조선업에 100~200명 배정

○ **기업수요 맞춤형**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규인력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지원하고, 생산인력의 **취업 및 근속을 촉진**하기 위해 **채용 지원금 지급 기간**을 **확대***할 계획이다.

* 채용지원금 지급기간 확대 : (현행) 월 60만원×2개월 → ('23년) 월 60만원×6개월

❷ 둘째, 국내 조선산업이 미래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**기술·시장 초격차 확보를 추진**할 계획이다.

○ 우선 **'30년**까지 **고부가선박 점유율 75% 달성** 및 **무탄소선박* 상용화**를 위해 LNG船 고도화,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,

* 액화수소 운반선 시범건조('24~'29) 및 운영('29~) 추진일정 제시

○ **'26년**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**자율운항 선박**(국제해사기구 3단계) **상용화**를 **목표**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.

○ 또한,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의 **생산성 및 안전성**을 높이기 위해 **선박 건조 全공정 디지털 전환**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,

○ **미래시장 변동성 대응**을 위해, **FSRU* 개조, 특수선 MRO**, CO2/수소 해상 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**포트폴리오 다각화도** 지원할 예정이다.

* FSRU(Floating, Storage, Re-gasification Unit) : 해상운송된 LNG의 육상공급 시설

❸ 마지막으로 국내 **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할 계획**이다.

○ 최근 수주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 환급보증(RG)으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**RG 적기 발급***을 **지원**하고, **특례보증****(무보) **활용**을 **지원**하는 한편,

*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 추가발급 검토

** 금융기관의 RG발급시 무보가 일정부분(대형사 95%, 중소형사 85%) 보증하는 제도

○ **철강산업*과의 동반성장**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도모, **대중소 기업간 상생**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,

* 후판 수급점검, 신뢰기반 후판가격 협상 기반 조성, 동반성장 방안 연구 등

○ 패키지 R&D, 수출상담회, 기자재 A/S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여, 중소형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**수출역량을 강화할 예정**이다.

□ 이를 위해 산업부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간 확대 등 **제도 변경사항**을 **업계에 홍보**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, 친환경·자율운항 **선박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진행**하는 한편,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해 **RG 발급 상황, 강재 수급 상황**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□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세계 선박시장이 **본격적 회복기**에 진입함에 따라 **수주 확대, 선가 상승** 등 우리 조선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,

○ **친환경·디지털 전환**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시장의 환경변화 역시 세계 최고의 **기술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**에는 **기회요인**이라고 평가하고,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조선산업의 **초격차를 실현**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.

○ 또한, 조선산업의 **지속 가능한 발전**을 위해서는 **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**와 **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**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- 이를 위해 향후 **RG 발급시** 선가 등 **시장 여건을 고려**하는 한편,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**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**을 추진하고,
-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과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**후판가격 협상방식 개선**도 검토할 계획이며,
- 아울러, **핵심 인력 유출 방지**를 위해 **호황기에 기금을 마련**하고,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.

【별 첨】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

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	책임자	과 장	송현주 (044-203-4330)
		담당자	사무관	여수항 (suhangyeo@korea.kr)
<공동>	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	책임자	과 장	김승태 (044-215-4530)
		담당자	사무관	황인환 (inhwan89@korea.kr)
<협조>	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손필훈 (044-202-7588)
		담당자	서기관	구현경 (hkkoo@korea.kr)
<협조>	법무부 채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승현 (02-2110-4055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원 (jiwon093@moj.go.kr)
<협조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석란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수 (junsookim@korea.kr)
<협조>	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	책임자	과 장	이창용 (044-200-58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세준 (funkysj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